

제 9장

언어 발달

차 례

1. 언어의 정의

2. 언어발달의 이론

- 1) 생물학적 이론
- 2) 학습이론
- 3) 인지발달 이론

3. 언어의 구조적 구성의 발달

- 1) 음운론 (Phonology)의 발달
- 2) 형태론 (Morphology)의 발달
- 3) 통사론 (Syntax)의 발달
- 4) 화용론 (Pragmatics)의 발달

4.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

- 1) 유전요인
- 2) 환경요인

5. 언어발달의 다양성

- 1) 수화의 발달
- 2) 성차
- 3) 쌍둥이의 언어발달
- 4) 개인차
- 5) 이중언어자의 언어발달

1. 언어의 정의

- 2인 이상의 사람이 음성, 문자, 혹은 신체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행동
- 한 공동체가 사용하는 단어와 그 단어를 변형시키고 조합하는 규칙으로 구성

2-1. 언어발달의 이론: 생물학적 이론

❖ Chomsky (1968): LAD이론

- ✓ 인간은 특정 시기 특정 언어를 배우게끔 생물학적으로 구성된 ‘언어 습득 장치 (Language Acquisition Device)’를 가지고 있다
- ✓ 단어의 뜻은 무한대. 그것을 쉽게 아는 것은 생물학적 장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

❖ 생물학적 이론의 증거

- ✓ 범문화적 언어발달
- ✓ 신생아가 보여주는 언어에 대한 민감성
- ✓ 결정적 시기 이론: Genie의 케이스

❖ 생물학적 이론의 비판

- ✓ 언어 습득 장치는 완벽하지 않다
- ✓ How & Why에 대한 답변 부족

2-2. 언어발달의 이론: 환경주의 언어이론

- Skinner (1957): 조작적 조건형성
- Bandura (1977): 모방행동
- 지지
 - 사회-경제적 수준과 언어발달
 - shaping bias
- 비판
 - 창조적 언어학습
 - 아이들은 문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
 - 전 문화적으로 거의 규칙적
 - 언어급증 현상

아이들이 주로 쓰는 명사형태

	명사 중 퍼센트
인칭 (엄마, 아빠..)	13%
이름 (뽕뽕이..)	4%
기타 사람 (애기, 경찰..)	3%
사물	35%
동물	17%
몸의 부위	5%
기타	6%

2-3. 언어 발달의 이론: 인지 발달 이론

- Piaget (1952): 감각운동기와 언어 발달
 - 생각 → 언어
- Vygotsky의 사회-문화 발달이론
 - 언어와 사고는 동시 발달
 - 2세 이후에 통합됨
 - 언어는 사회적 산물
- 반론: Whorf (1956)
 - 언어 → 생각
 - 영어와 한국어의 ‘in과 on’, ‘끼다와 놓다’의 차이

3-1. 언어의 구조적 구성: 음운론 (phonology)의 발달

- 음소 (Phoneme): 단어를 이루기 위해 형성된 독특한 음성
 - 분절음소 [分節音素] Segmented phoneme: 자음과 모음
 - 운소(韻素), 상가음소 (上加音素) Suprasegmented phoneme: 높낮이, 인토네이션, 액센트..
- 유아가 어떻게 음운을 이해하고, 음운을 생성해 내는지 그 발달과정을 연구

3-1. 언어의 구조적 구성: 음운론의 발달 과정

- 1단계: 신생아의 음성 (울음, 트림..)
- 2단계: Cooing (1-3개월)
 - 대체로 만족했을 때 내는 소리
 - ‘우’ 발음이 많고 주로 ㄱ 나 ㄱ의 자음에 많
이 붙음 → Cooing
 - 모음이 앞에 갈 경우 대부분 그 모음 자체만
말하는 경향 (aaaaa, ooooo, uuuu)

3-1. 언어의 구조적 구성: 음운론의 발달 과정

- 3단계: 웅알이
 - 일련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구성
 - 주로 자음과 모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(bababa, gagaga, dadada)
 - Cooing의 경우 대부분 모음이지만 웅알이에 들어오면서 자음의 수가 증가
 - 대부분 문화권에서 비슷한 양식, 비슷한 발음으로 시작됨 → 이후 안 쓰는 발음 감소

3-1. 언어의 구조적 구성: 음운론의 발달과정

- **용알이와 언어발달의 관계**
 - 이전부터 용알이와 언어발달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(용알이 빠름 → 말 배우는 것도 빠름)
 - 반론: 용알이는 단지 음성에만 관여. 문법이 나 언어인식 등을 포함한 언어발달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.
 - 최근의 대체적인 연구결과:
 - 어느 정도 상관은 있다는 연구가 다수
 - 용알이를 통해 언어생성 연습을 많이 한 유아가 말을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을 지도..

3-2. 형태론 (Morphology)의 발달

- Morpheme: 의미가 있는 최소 언어단위
- 불고기가 먹고 싶다
→ 불+고기+가+먹+고+싶+다
- 단/복수 (book**s**), 시제 (help**ed**)등에서 다양한 문법을 규정
- 많은 아이들이 오류를 범하는 영역
- 형태론의 발달: 아이들이 다양한 음운을 이용하여 어떻게 의미 있는 말을 만들어 내는가?

3-2. 형태론 (Morphology)의 발달: 규칙적 웅얼이 (canonical babbling)

- 단어와 매우 비슷한 웅얼이
- 웅얼이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
(Adamson, 1995)
- 약 10개월 즈음해서 시작
- 대부분 한가지 자음과 한가지 모음
- 부모의 강화가 영향을 줌 (모르는 사람을 보고 ‘마마’ 라고 한 경우)

3-2. 형태론 (Morphology)의 발달: 첫 언어의 특징

- 대부분 명사
- 대체로 사람이나 특별한 사물을 지칭 (개, 차)
- 대체로 동사, 형용사, 부사의 순으로 발달이 진행 (영어의 경우)
- 대체로 한 단어 (가! 싫어! 응!)
- 반복적인 단어 (빠이 빠이)
- 자음 ㅅ, ㅂ, ㄷ, ㅌ, ㅁ, 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

유아기 단어발달의 특징 1: 과대적용과 과소적용

- overextension: 특정 단어를 다른 맥락이나 상황에 과대 적용하는 특징
 - 달을 보면서 ‘달’ 이라고 한 아이가 달 모양의 빵이나 과자들을 보고도 달이라고 하는 것
- underextension: 특정 단어를 너무 독특한 맥락에서만 과소 적용하는 특징
 - ‘차’ 는 자기집 차만 차고 남의 집 차는 차가 아님
- 왜?
 -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: Piaget의 동화와 조절과정
 - 단지 단어를 모를 뿐. 따라서 비슷한 아는 말을 쓸 뿐이다 (underextension의 경우 설명하기 힘들)
 - ‘튜닝 작업’ : 강화에 의해 튜닝이 되는 과정이다

유아기 단어발달의 특징2: 언어산출과 언어이해

- 언어이해: 타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
- 언어산출: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
- 대부분 언어발달에서 아기들은 말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단어를 이해함
- 말하기 전 약 3-4개월 전에도 몇 가지 단어는 이해
- 13개월 (3단어)에도 약 50단어의 의미는 이해 (Adamson, 1995)
-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쳐 줄 경우 의사소통을 증가할 수 있음
 - “베이비 사인”
 - 단어보다 쉽게 배우며 말 배우기 전에 사용 가능
 - 좌절감 감소를 통해 징얼거리는 행동 감소
 - 언어발달 및 다른 인지발달에 긍정적 역할

3-3. 통사론 (Syntax)의 발달

- 단어가 구절과 문장으로 구성되는 방식
- 불고기가 먹고 싶다
→ 불고기 (명사)+가(주격조사)+먹(동사)+고 싶다(보조형용사).
- 유아들이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고 문장 내에서 단어가 쓰이는 법을 알아가는가?
- 첫 단어 산출 (8-10 month)
 - 12-18개월의 경우 보통 한 단어로 의미전달 (holophrase)
 - ‘공’ → 공 쥐, 저기 공이 있다...
 - 대부분 제스처가 같이 쓰여져서 의미전달
 - 어휘급증 (18 month)
- 두 단어 발화 (18-24 month)
 - 전보식 발화 (telegraphic speech)
 - 대부분 기본적인 문법규칙에 맞게 배열: “아빠가(0)” “가아빠 (x)”

어휘 급증 (Vocabulary Spurt)

- 첫 단어를 말한 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
- 1000단어를 2년 동안 기억: 하루에 1.4개 단어 기억하는 셈
- 2세 즈음 하여 갑자기 단어능력이 향상되는 현상
- 왜?
 - 인지발달, 물체에 대한 개념 및 범주화의 능력 발달
 - 언어와 물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
 - 상호작용 시 언어의 유용성에 대한 이
→ 새로운 단어를 배우려는 동기 증가

월령	단어 수	+
8	0	
10	1	1
12	3	2
18	22	19
21	118	96
24	272	154
30	446	174
36	896	450

3-4. 화용론 (Pragmatics)의 발달: 대화의 룰에 대한 이해

- 언어와 관련된 맥락 (의문형, 공손체, 강조체 등), 사람들간의 관계, 법칙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?
- 대화의 룰에 대한 이해
 - Turn taking: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룰
 - 학습의 효과: 보통 부모와 상호작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짐
 - 대부분 아동이 자연스럽게 기억
 - 비 언어적 물질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발견

3-4. 화용론 (Pragmatics)의 발달: 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이해

- 대부분 언어발달과 같이 발달
 - 언어발달이 진행될수록 얼굴 표정과 제스처가 다양화
- 8개월 아동에게 주로 관찰되는 비언어적 단서 (Fenson et al., 1994)
 - 손을 앞으로 벌리는 행위 (안아줘)
 - 포인팅 - 9개월 이후에 주로 발달

3-4. 화용론 (Pragmatics)의 발달: Proxemics (대화의 공간)에 대한 이해

- Hall (1969)의 상호작용 시 사용되는 4가지 근접영역
 - 0-45cm: 친밀 구역
 - 45cm-1m: 개인 구역
 - 1-3m: 사회적 구역
 - 3-7m: 공공 구역
- 대부분 유아는 친밀구역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
- 3세 후 점점 다음 단계로 선호도가 넘어감

4-1.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: 유전요인과 결정적 시기이론

- Genie의 케이스
- 수화와 결정적 시기
 - Newport (1990): 청각장애아 중 4-6세에 수화를 배운 아동이 12세 이후에 배웠던 아이보다 수화를 훨씬 잘한다
- 제2 외국어와 결정적 시기
 - Bruer (1999): 제2언어는 15세 이후에 배웠을 경우 마스터 할 수 없다

4-2.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: 환경요인

- 사회경제적 지위 (SES)

- 중상위 SES → 언어발달 빠름
- Hart & Risley (1995)의 11-18개월 아동을 둔 부모 연구
 - 중상층: 시간당 535 발화, 그 중 321개를 아이에게
 - 하층: 시간당 521 발화, 그 중 283개가 아이에게
- 가난하면 아무래도 아이에게 반응할 시간이 적다
- 3-4세가 될 때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음

- 부모-자식간의 관계

- 부모는 아동이 언어를 배우는 통로로 작용
- 82%의 대화는 아이들이 먼저 시작 (Papousek et al., 1987)
- 인간은 아이가 말을 건넬 경우 아이가 좋아하는 음성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다 (“Baby Talk”)
- 이러한 맥락을 통해 유아들의 언어발달 향상

아기말투 (Baby Talk)

- 어른이 말하는 ‘아이스러운 말’
-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어른들이 아이를 상대로 하는 말은 보편적
 1. 높은 피치, 리듬감 있고 다양한 톤의 언어 (예. 했쨌여?)
 2. 간단한 단어 : 엄마>어머니, 맘마>식사
 3. 단순화된 문법구조: 오줌 샀네>너 기저귀에다 오줌을 샀구나
 4. 같은 단어의 반복: 맘마, 맘마
 5. 아이와 관련된 대화: 강아지>개>황구
- 어린애들이 더 어린애한테 말할 때도 발생 (Trehub et al., 1993)
- 아버지는 이런 경향이 덜함 (Giattino & Hogan, 1975). 특히 1번과 4번
- 문화권에 따른 미세한 차이는 존재
 - 일본 엄마는 미국 엄마에 비해
 - 반복 발음 많이 하고 (dadada, bababa...) 아이의 행동을 많이 따라 함
 - 높은 피치는 상대적으로 흑인에게는 좀 덜한 편

아기말투의 또 다른 예: 자장가

- 약간 주파수가 낮고, 반복적이고, 리듬이 있고, 숨쉬는 것과 들어맞으면서 사람의 음성이 들어간 음악 →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형태
- 자장가를 부르는 빈도
 - 아빠 < 엄마
- 대체로 아빠는 자장가가 아니라 동요나, 가요, 아니면 지어내서 부르는 경향이 많음 (Trehub et al., 1993)

아기말투의 효과

- 실제로 아기말투를 할 경우 아기들의 반응이 증가 (Bates et al., 1977)
- 아기들도 아기말투를 더 선호 (더 많이 웃음) (Trehub et al., 1993)
- 이런 과정을 통해 보다 유아와 어른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고 어른에 의한 언어발달의 효과를 극대화

5-1. 언어발달의 다양성: 수화 (sign language)의 발달

- 청각 장애아의 경우 손을 이용하여 응
알이
- 수화를 하는 아이들의 언어(수화)습득
속도와 단계는 언어로 말하는 아이와
비슷함
- 문법구조를 만들어내는 양식과 속도
도 유사 (Meier, 1991)

5-2. 언어발달의 다양성: 성차

- 옛날부터 언어영역은 여아가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속설
- 하지만 발달의 경우 큰 차이는 없다는 게 대부분 연구결과
- 몇몇 언어발달 지표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보다 '약간' 우세하지만 (Fenson, 1994), 그 수준은 매우 미세
- 몇 가지 부분에는 성차 (여아우수) 현상 발견
 - 단어 습득
 - 말의 길이
- 흔히 언어는 여자가 우세, 인지는 남성이 우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할 정도이며 개인차가 훨씬 크다

5-3. 언어발달의 다양성: 쌍둥이의 언어발달

- 쌍둥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언어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린 경향이 있음 (Drillien, 1964)
- 왜?
 - 쌍둥이의 경우 조숙아가 많고
 - 형제가 많을 경우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엄마 아빠의 시간이 작기 때문
 - Idioglossia (쌍둥이 언어): 쌍둥이끼리 만 통하는 특수 언어체계
- 최근 연구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 쌍둥이와 1인 아동의 언어발달의 차이가 사라짐 (Akerman & Thomassen, 1991)

5-4. 언어발달의 다양성: 언어발달과 개인차

- 언어발달은 개인차가 무척 작지만 분명히 존재
- 첫 단어를 말하는 개인차: 13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0에서 45개까지 다양 (Snyder et al., 1981)
- 개인적 스타일도 존재
 - referential style: 물건을 지칭하는 말을 주로 습득
 - expressive style: 동사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말을 주로 습득 (~가, ~와 등) → 전체 단어 수는 적은 편
- 부모의 스타일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 (Goldfield, 1987)

5-5. 언어 발달의 다양성: 이중언어 자의 언어 발달

- Multilingualism: 두 가지 언어 이상을 유능하게 구사하는 언어능력
- 한 언어 이상을 말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언어 발달의 시기가 느린 경향
- 왜?
 -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가 헷갈리기 때문
 -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언어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사 (Oblen, 1985)
-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?
 - 한 부모는 한 언어만 쓸 경우
 - 한 맥락에서는 한 단어만 쓸 경우
→ 제 2 외국어 습득의 지름길?

조기 외국어 교육과 언어발달

- 언어발달의 경향을 볼 때 외국어 교육은 어릴수록 유리한 것은 확실
- 가장 좋은 방법
 - 외국인과 같이 살거나
 - 집에선 영어만 쓰는 경우
- 이 경우가 아니라면 'native speaker'가 될 생각은 안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음.
- 영어는 언제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?
 - 한글을 어느 정도 제대로 구사한 후에 가르치는 경우
 - 일단 한글은 기본적인 것만 가르친 후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
- 이중언어 연구에 의하면 2의 경우가 더 효과적
- 하지만 이 경우는 '이중언어자'의 케이스. 제2외국어 학습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